

## KWC 수상 와인에서 찾는 같은 품종 다른 이름

품종의 세계란 막장드라마처럼 놀랍다. “저 품종이랑 이 품종이랑 같은 품종이라고?”라는 말이 특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저마다 다른 맛과 향을 구분하기도, 낯선 언어를 읽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궁금하다. 내가 좋아하는 품종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왜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여러 이름을 가진 네 품종, 그리고 그로 빛은 KWC 수상 와인들을 소개한다. 글 김은지 사진 장영수, Wikipedia, Alchetron, Freepik



### Molinara 몰리나라 / Rossanella 로싸넬라

몰리나라는 껍질 표면에 하얀 당분이 묻어 있다. 그래서 방앗간 주인을 뜻하는 ‘몰리나라(Mulinara)’에서 이름을 가져와 ‘몰리나라라’라고 불리게 되었다. 베네토 지역에서 태어났으나 1800년 이후부터 발폴리첼라와 발판테나 지역에서도 자라났다.

독특하게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가르다 지역(Garda area, 이탈리아 가르다 호수 부근)에서는 로싸넬라(Rossanella) 혹은 로싸라(Rossara), 발판테나 지역에서는 브레폰(Brepon)이라고 불린다. 이외에도 브레폰 몰리나로(Brepon Molinaro), 폴라(Pola), 솔라(Sola), 베스폰(Vespone) 등 아주 다양한 이름이 있다. 포도송이의 크기는 중간 정도로, 포도알은 장밋빛을 띤 타원형이다.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도 색상이 연하며, 와인으로 빚어냈을 때도 연한 장밋빛을 띤다.

수상와인

**Gold** Masi Costasera Amarone  
수입사 레뱅드매일

### Monastrell 모나스트렐 / Mataro 마타로

이 품종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론 지방에서도 재배되며 스페인의 후미야 지역,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품종이 재배된다.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나스트렐은 각 나라의 언어에 맞는 이름을 얻었다. 프랑스에서는 무르베드르(Mourvèdre), 호주에서는 마타로(Mataro)라고 불린다. 모나스트렐은 스페인에서 얻은 이름이다.

이름과 고향에 따라 맛도 조금씩 변화한다. 파워풀하고 더 짙은 색을 띠는 마타로, 스페인의 더운 기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무르베드르는 드라이하고 편안한 탄닌이 특징이다. 그밖의 95개의 다른 이름을 가진 모나스트렐은 포트 와인이나 로제 와인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품종이다. 짙은 색과 탄닌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수상와인

**Gold** Bodegas Castaño Hécula  
수입사 WStong



**GÉRARD BERTRAND**

L'ART DE VIVRE LES VINS DU SUD



프랑스 남부지역 최고의 와이너리  
"제라르 베르트랑"

2011년 Wine Star Award - 2011년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와이너리 (European Winery of the Year) 선정  
2012년 IWC (International Wine Challenge) - 올해의 레드 와인메이커 (The Best Red Winemaker of the Year) 수상  
2016년 1월 La Revue du Vin de France (프랑스 대표 와인매거진) - 올해의 와이너리 (The Best Winery of the Year) 선정

하이트진로 제품문의 : 하이트진로 02-3014-5134  
광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Garnacha 가르나차 / Grenache 그르나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레드와인 품종 중 하나다. 많은 이름 중에서도 스페인의 가르나차, 프랑스의 그르나슈 이 두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가르나차는 스페인의 조건에 알맞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조량이 많고 돌이 많은 토양에서 번성하는 성질을 가져,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이 품종은 피레네산맥을 넘어 프랑스로 건너갔다. 19세기에 랑그독과 남부 론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르나슈라는 이름도 붙여졌다. 호주로 건너간 것은 18세기다. 호수에 처음 그르나슈가 도입되었을 때는 포트파이드 와인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호주 GSM(Grenache-Shiraz-Mataro) 블렌드 중 하나인 필수 요소가 되었다.

수상와인

Gold Bodegas El Tanino 1752  
수입사 가자주류



### Syrah 시라 / Shiraz 쉬라즈

비슷한 두 이름이 무색하게 이름에 따라 확연한 맛의 차이를 보인다. 같은 품종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시라는 프랑스의 론 지방과 랑그독 지방에서 만들어진 품종이다. 드라이하고 탄닌감을 자아낸다. 반면 호주의 쉬라즈는 탄닌감 보다는 아주 부드러운 질감과 향긋한 향이 특징이다. 쉬라즈는 호주의 바로사 지역에서 캔버라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재배된다. 즉, 호주 내에서도 지역 간의 기후 차이에 따라 다른 맛의 쉬라즈 와인을 만들어낸다. 이미 한국에서도 친숙한 품종 이름 시라와 쉬라즈는 이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발사미나 (Balsamina), 칸디브(Candive)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ㄱ

수상와인

Gold Morambro Creek Shiraz  
수입사 T&E Terroir

BODEGA  
*NavarroCorreas*  
**ALEGORÍA**  
GRAN RESERVA



Navarro Correas Alegoria Malbec  
나바로 꼬레아스 알레고리아 말벵

하이트진로 제품문의 : 하이트진로 02-3014-5134  
광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